

아싸리 삼시다

김재검(목사, 전북 옥구 둔산제일교회)

작년에 군산노회 농어촌부 행사로 농어촌 목회지 탐방을 할 때 천안 광덕리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식당 한 켠 모임방에 게시되어 있는 글귀가 아사 교회생(我死教會生)이었습니다. 예부터 익히 들어온 아사주생(我死主生)을 교회생활 표어로 삼은 거겠지요.

목회자가 겪는 괴롭 중 하나는 교인들이 빠져 인간관계가 서로 꼬이는 일입니다. 아이들말로 누가 꼴았다 하면 여러 사람이 괴롭지요. 그래 저도 우리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. “우리 아사주생의 이치로 삼시다. 내 아 죽을 사 내가 죽으면, 주인 주 살 생 주님이 살고, 아생주사 내가 살면 주님이 죽는다는 말입니다. 아사주생 아생주사의 이치를 늘 생각하고 삼시다! 이 이치를 줄여서 아사리(我死理) - 아싸리! 서로서로 아싸리 삼시다.”

일반적으로 쓰는 ‘아싸리’라는 말이 우리 옛 놀음에서 ‘승부가 한 판에 달린 때의 그 판’이라는 ‘앗사위’가 변하여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뜻은 꾸밈없이, 화끈하게, 털어놓고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사리(我死理)로 살면 ‘아싸리 하게’ 살게 되니 언어의 유희로만 여길 것이 아니지요.

이중표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20절을 중심해서 별세목회, 곧

“목회자 자신부터 자기 감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 잘 죽고 또한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야한다”고 주창해온 내용도 바로 ‘아싸리’ 살자는 말씀이겠지요?

그런데 아싸리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이룸하여 사람은 감정의 동물! 그레 바울 사도님도 “나는 날마다 죽노라”(고전 15:31) 하고 죽기를 힘썼겠지요. 십자가에서 용서를 웅변하시는 예수님과 돌무더기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스테반 집사가 다 된양 “원수값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.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”(롬 12:20)고 바울은 사랑을 말했지만 아직도 감정에 대해 죽지 못했기에 “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찌어다”(고전16:21) 하고 사랑을 말한 입으로 저주를 말했겠지요. 그래서 죽었어야 함에도 아직 죽지 못했기에 날마다 죽기를 다 집혔을 것입니다. 이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바울을 좋아하나 봅니다.

아싸리와 관련한 얘기 하나. 사람이 개와 겨루기를 했다 이거야.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, 비기면 개 같은 놈, 지면 개보다 못한 놈. 그러니 상책은? 개 같은 자가 있으면 상관하질 말어! ❷

하나님 아버지!

교회 역사의 길고 짧음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마다 대표기도 시킬까봐 겁내하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다. 겸양의 미덕으로 기도 인도하기를 사양하는 줄 알았으나 나중 보면 대개가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심지어 기도 말할까봐 고민하는 것을 보고 기도에 관해 강해를 하기도 하지만 별반 도움되는 것 같지 않다.

김영원 장로님이 쓴 『효선 교회사』를 소개한 글에 보니 한번은 교회 부흥회가 열린 중에 낮 공부시간 기도하도록 지명을 받은 이가

기도하기를

“하나님 아버지시요, 기도할 줄도 모르는 내보고 기도하라 갑니다. 지도 기도 잘하게 해 주이소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”

또, 남편이 병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이 40에 홀로되어 자녀 5남매를 갖은 수고로 양육했던 여자 분이 훗날, 장성한 딸에게 한 간증 중에

“하나님 아버지, 이 봄에 찾아온 이 기운을 어찌하오리까. 아버지께서 이 몸의 타오르는 봄기운을 거두어 주시지 않으면 어찌 하겠습니까? 원하옵나니 이 육신의 정을 거두어 주옵소서.”라고 간구하였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 다시는 불같은 육욕으로 고통 당하지 않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.

청년 때 고향교회 집사님 한 분은 기도 중에 빠지 않고

“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일꾼 없다없다 하지말고 우리 자신들이 일꾼 되게 하옵소서.”했다.

작지만 할 일이 많았던 초임지 교회 한 노인 집사님의 기도는 “하나님 아버지 전기선줄 뻗치듯 사망으로 연결해서 우리 교회를 도와 주옵소서”, “하나님 아버지, 물 묻은 되에 참깨 따라 붓듯이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하옵소서.”였다.

전도사 시절 한번은 당회장 목사님의 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하였는데 그 새벽 공중기도 말은 교인의 기도가 참 인상 깊었다.

“하나님 아버지, 농번기 농사일로 송장처럼 누웠던 저희를 이 새벽에 풀잎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.”

끝으로 어려서 고향마을 한 형에게 들었던 말,

“하나님 아버지, 벌을 주시려거든 가다마이(양복) 한 벌을 주시고, 벼락을 주시려거든 돈벼락을 주옵소서”는 옷과 돈이 무지무지하게 귀하던 시절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 속의 기도이었던가? 아무튼 공중 기도는 엄두도 못내는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가식 없이 몇 마디의 기도라도 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. ❶